



5000여 건각들의 힘찬 땀방울이 메마른 남도의 대지를 촉촉이 적셨다. 5km와 10km 참가들이 광주월드컵경기장에 출발해 힘찬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부문별 우승자 인터뷰

“첫 출전서 거둔 우승에 자신감 상승”

폴코스 남자 이흥국씨

“처음 찾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기분이 더욱 좋습니다.”
남자 폴코스 우승의 영광은 수원에서 먼 길을 달려온 이흥국(43·수원사랑마라톤클럽) 씨에게 돌아갔다. 3·1 마라톤 대회 처녀 출전이지만 이씨는 알고 보면 아마추어 마라톤계에서는 소문난 실력자다.
학창시절 중장거리 선수로 활약했던 이씨는 지난 1월 여수마라톤대회 우승으로 시즌을 연 뒤 두 번째 대회로 선택한 3·1 마라톤 대회에서도 1위 자리를 쟁했다.
대회 전날 광주를 찾아 컨디션 관리를 했



던 이씨는 “3·1 마라톤 대회에는 처음 출전했는데 오르막이 크게 없고 코스가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비가 내리어서 체온 유지를 하느라 조금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통제가 잘된 훌륭한 대회였다”고 평가했다.
또 “마라톤은 자기자신과의 싸움이다. 성취감이 있고 달리면서 자신감을 얻게 된다”며 “3·1 마라톤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만큼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완주 목표로 뛰었는데 4연패 이뤄”

폴코스 여자 이정숙씨

“감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임상보다는 무리하지 않고 완주하는데 목표를 뒀는데 우승해 너무 기쁩니다.”
여자 폴코스에서 4연패를 달성한 이정숙(49·천안마라톤클럽) 씨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걱정이 많았는데 광주에 간다는 생각에 힘이 났다”며 “비록 좋은 기록은 아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만큼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꿈나무들을 지도하는 육상지도자다. 국내 마라톤



계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실력자다.
3·1절 마라톤과는 지난 2008년 인연을 맺었다. 2008·2009년 하프 우승에 이어 2011년 폴코스로 전환해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이 씨는 “즐기면서 달리는 마라톤만큼 스트레스 해소와 몸매 관리에 좋은 운동은 없다”며 “첫 스타트이자, 3·1 민족정신이 담긴 대회에서 우승해 올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화제의 참가자들



“함께 땀 흘리며 영·호남 우정 쌓습니다”

광주-대구 마라톤 클럽

“광주시와 대구시는 정치분야에서 ‘달빛동맹’을 통해 상호 협력의 모범을 창조했습니다. 광주일보 3·1절 마라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스포츠 교류’를 펼쳐 민간 분야에서 양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지난 1999년 11월11일과 7월7일 각각 창단한 광주마라톤클럽과 대구마라톤협회는 총회원수가 1500여명에 달하며 각각 10년 이 넘도록 ‘빛고을울트라마라톤’, ‘달구벌마라톤대회(회장 김성영)’가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영·호남간 우호와

친목을 다지는 스포츠 교류 활동에 나섰다. 이번 3·1절 마라톤 대회에는 대구마라톤협회 회원 25명이 참가했다. 양 단체는 대회 후 회의를 열고 마라톤 등 스포츠를 포함해 양 지역의 문화·인적 교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1999년 11월11일과 7월7일 각각 창단한 광주마라톤클럽과 대구마라톤협회는 총회원수가 1500여명에 달하며 각각 10년 이 넘도록 ‘빛고을울트라마라톤’, ‘달구벌마라톤대회(회장 김성영)’가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영·호남간 우호와

/박정욱기자 halo@

“남도 경치 함께해 행복...내년 또 도전”

하프코스 남자 김승환씨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 참가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 참가할 때마다 남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서울 에이스클럽 소속 김승환(43·서울시노원구)씨는 이번 대회 하프 코스에 참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김씨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많아 생각보다 힘든 코스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너무 기쁘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올해로 마라톤 경력 7년째인 김씨는 짧은 경력에 비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



뒀다. 지난 3·1절 마라톤 대회에서만 두 차례 모두 시상대에 올랐다.
김씨는 “마라톤 코스에서 힘들었는데, 참고 뛰다가 보니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다. 지난 대회에 비해 실력 있는 선수들이 많이 참여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씨는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만 참가하면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내년도도 꼭 참가해 2연패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매일 10km 달리기 훈련이 우승 비결”

하프코스 여자 류승화씨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회원들과 매일 같이 운동을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너무 기쁩니다.”
하프 코스 여자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류승화(여·36·천안시)씨는 “참가 당일 3·1절이었지만, 코스를 도는 도중 한 어르신께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외치는 것을 보고 큰 힘이 났다”며 “구간이 시달렸는데도, 통제가 잘 이루어져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10년 전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마라톤과 인연을 맺은 류씨는 지난달 23일 2014 경기국



제하프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차지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수 차례나 우승을 차지한 실력자다.
류씨는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평균 10km 이상씩 꾸준히 달렸던 게 우승비결이라고 전했다.
류씨는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 참가가 이번이 처음이다. 무엇보다 코스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며 “내년도도 다시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

“도시락 싸준 아내 큰 힘...여보, 고마워”

10km 남자 이재석씨

“묵묵히 챙겨준 아내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올해 아이를 가질 생각인데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만큼 좋은 기운을 받아 올해 꼭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네요.”
남자 10km부문에 우승한 이재석(33·전주시용성동)씨는 이번 대회를 위해 아내와 함께 광주를 찾았다. 그는 마라톤을 좋아하는 경력 10년 차 배태량이지만 자신을 ‘초보 농부’라고 소개했다.
“농사라는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었다고 했



을 때 주변에서 걱정도 많았지만 지금은 만족하며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아마 마라톤을 하며 얻은 인내력과 끈기가 농사를 지을 때 큰 도움이 된 거 같아요.”
그는 바쁜 와중에도 매주 주말 10km를 달린다. 마라톤을 워낙 좋아해서 가족들에게 미안할 때도 있지만 음식을 손수 챙겨주는 정성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으며 아내에게 기쁨을 전했다.
/양세열기자 hot@

“통영의 새벽을 가른 효과 봤네요”

10km 여자 전정숙씨

10km 코스 여자 부분 우승자인 전정숙(44·경남 통영)씨는 우승의 비결로 꾸준한 연습과 자기관리를 꼽았다. 6년 전 회사에서 마라톤에 단체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달리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그녀는 일주일에 3번, 새벽 5시부터 1시간 가량 통영초등학교와 마리나리조트 등을 돌며 뛰고 있다.
30대 후반부터 마라톤에 입문한 ‘늦깎이’ 마라토너지만 ‘달리는 것’에 대한 애착은 누구보다 크다. 전씨는 “새벽에 아무도 없는 거리를 달리면 기분전환도 되고,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도 풀린다”며 “몸매와 건강관리는 덤”이라고 미소지었다.
그는 “비가 온 탓에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코스를 뛰면서 광주의 이모저모를 볼 수 있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었다며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아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함께 마라톤에 참가할 계획”이라 말했다.
/박정욱기자 halo@kwangju.co.kr

“마라톤은 의정활동 에너지의 원천”

7년 연속 하프 완주 임내현 의원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임내현(62·광주 북구) 국회의원 7년 연속 하프코스를 완주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대회 기록은 2시간1분8초. 평소 기록(1시간 50분대)보다 다소 저조했지만, 이순이 넘은 나이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임 의원은 “건강 관리는 물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마라톤대회를 참가하고 있다”며 “3·1절 마라톤에 단골 출전하다보니 시민들도 ‘씩씩하고 건강해서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다’며 호응해준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마라톤 마니아다.
지난 1998년 7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창원지검 진주지청과 동서 화합을 위한 광양~하동 4km 단축마라톤을 개최해 호평을 받았다.
2002년부터는 마라토너가 됐다. 광주일보 3·1절 마라톤과는 2005년 광주고검장



시절 인연을 맺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출전하는 등 9차례 하프코스를 질주했다.
임 의원은 에너지가 넘친다. 그는 근원을 마라톤이라고 밝혔다. 마라톤으로 충전한 에너지는 의정활동과 사회운동에 쏟고 있다.
임 의원은 “일제 식민통치에 항거한 의미 있는 날에, 5·18민중항쟁의 심장부인 옛 전남도청을 출발해 광주도심을 가로지르며 독립과 민주주의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라며 “앞으로 시민들과 큰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Advertisement for '이태리 가구 전문점' (Italy Furniture Specialty Store) featuring 'SINCE 1989' and 'NAVER 홍스페이스' (Naver Hongspace) listing the address as Kwangju-gwangyeoksi Donggu Jangdong 58-15. Includes phone number 1899-0240 and the store name '홍스페이스 가구빌딩'.